



## 산재처리 지연 해결 촉구 농성, 성과 남기고 마무리 업무상질병·근골격계 처리 기간 축소기로 ... “산재보험 재편 투쟁 조직”

금속노조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처리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을 약속받으면서 107일의 농성을 마무리했다.

금속노조는 7월 22일 세종시 노동부 앞에서 ‘산재처리 지연 근본대책 마련, 산재보험제도 개혁을 위한 농성투쟁 보고 결의대회’를 열고 근로복지공단과 노동부를 상대로 벌인 농성투쟁을 마무리했다. 노조는 산재보험 전면 개혁을 위한 2차 투쟁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금속노조는 산재 노동자의 치료받을 권리 쟁취와 생존권을 박탈하는 산재처리 지연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산재보험을 운영하는 울산 근로복지공단 본부 앞에서 85일, 공단 운영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노동부 앞에서 22일간 농성투쟁을 벌였다. 민주노총도 노동부 앞에서 71일간 투쟁했다.

노조는 이번 투쟁을 통해 평균 6개월 이상 걸리던 업무상 질병 처리 기한을 100일 이내로 단축하고, 근골격계질환은 두 달 이내 처리하도록 제도개선을 쟁취했다. 노동부로부터 승인 전 치료 범위 확대와 인력충원 등을 통해 산재처리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답변도 받아냈다.

또한, 노조가 강력하게 요구한 ‘선보장 후평가 제도’ 도입에 관해 노동부는 “산재노동자 생활안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는 요구에 공감한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노동부는 선보장 후평가 제도 시행을 위해 연구용역 등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답변했다.

노조는 “애초 요구한 ‘산재신청 후 1개월 내 처리’에 미치지 못하는 부족한 답변을 받았지만, 지난 십수 년 동안 켜켜이 쌓인 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큰 한 걸음을 내딛는 성과를 만들어냈다”라고 이번 투쟁을 평가했다.

노조는 “짧지 않은 기간 함께 투쟁한 금속노동자 동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며 “전국의 금속노조 간부들이 비바람과 불벌더위에도 매일 울산 공단 앞과 세종시 노동부 앞 농성장으로 달려왔다”라고 고마움의 인사를 전했다.

노조는 농성투쟁을 마무리하면서 ▲수많은 절차 반복으로 신속한 산재처리를 가로막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제도 폐기 ▲산재처리 지연 문제 근본 해결 방안인 선보장 후평가 제도 도입을 2차 투쟁과제로 남

겼다.

이날 결의대회 사회를 맡은 강정주 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도 “오늘 결의대회를 승리 대회로 만들지 못했다. 한 달 안에 산재처리를 마무리하지는 요구는 관철하지 못했다”라면서, “많은 성과를 만들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의 산재보험 제도가 노동자에게 너무 어렵고 오래 걸리고 힘든 제도이다”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박세민 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누구도 엄두 내지 못했던, 민주노총 담당자들조차 그게 되겠냐며 콧방귀 끼었던 미친 짓을 성과로 바꾸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박세민 실장은 “금속노동자가 아름다운 투쟁을 전개했다고 판단한다”라며 “금속노조 조합원만을 위해 투쟁하지 않았다. 이 땅에서 일하는 병든 노동자의 짓밟힌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투쟁했다”라고 의의를 밝혔다.

박세민 실장은 “산재보험의 쉽고 편한 혁명적 재편을 위한 2차 투쟁을 준비하자. 더 큰 투쟁의 바다에서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하겠다”라며 산재보험 제도 전면 개혁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 “산업전환, 더는 자본에 맡겨놓지 않겠다”

## 노조 포항지부 21일 총파업 대회 ... 동일산업 복수노조 악용 탄압 저지 결의

금속노조 포항지부가 7월 21일 오후 ‘2021 투쟁 승리, 금속노조 포항지부 파업 투쟁 결의대회’를 동일산업 공장 안에서 열었다. 이번 결의대회는 금속노조가 전국 동시다발로 벌인 ‘산업전환협약 쟁취, 2021년 입단투 승리 1차 총파업 결의대회’ 가운데 하나다.

노조 포항지부는 결의대회 사전 행사로 조합원들과 함께 공동결정법 제정과 노조법개정 10만 입법청원을 실천했다. 지부는 입법청원 운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청원 페이지로 연결하는 QR코드를 편집한 부채와 버튼을 조합원들에게 나눠줬다.

김동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금속노동자들이 노조법개정 투쟁, 교섭창구 단일화 폐기 투쟁 전면에 나서야 한다. 온전한 노조할 권리 쟁취를 위해 나서자”라고 의지를 북돋웠다. 김동성 부위원장은 “조합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천하면 국민동의청원 마감까지 남은 일주일도 짧지 않다”라며 공동결정법·노조법 개정 입법청원 실천에 나서자고 독려했다.

황우찬 노조 포항지부장은 결의대회에서 “이 땅의 기후는 누가 망쳤나. 이 나라를 쥐고 있는 기득권 세력, 재벌·자본의 무절제한 생산으로 망쳤다”라며 “자본은 산업전환기를 틈타 또 자기들의 배를 채우려 한다”라고 재벌·대기업의 탐욕을 꼬집었다.

황우찬 지부장은 “금속노조는 산



업전환을 더는 자본에 맡겨놓지 않을 것이다. 노동자 희생과 기후 파괴 없는 정의로운 산업전환으로 이 세상을 올바르게 다시 세우는 투쟁을 조직하자”라고 호소했다.

이날 결의대회 장소인 동일산업은 복수노조 사업장이다. 금속노조 지회 설립 이후 한국노총 노조가 들어서 복수노조 사업장이 됐다. 동일산업 자본은 금속노조를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부집단교섭에 들어왔음에도 성의 있는 안을 제시하지 않으며 교섭을 게을리하고, 복수노조를 이용해 갈등 조장한다.

양대석 노조 포항지부 동일산업지회장은 결의대회 투쟁사를 통해 “지회는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첫째, 교대제 개편이다. 조합원들이 장시간 야간노동에 고통받고 있다. 둘째, 현장에 계약직이라는 개념이 없었다. 회사가 지난해 말부터 계약직을 뽑는다. 사측이 꿈수를 부린다. 셋째, 공정한 분배다. 동일산업 노동자들 임금이 매우 낮다. 성과급을

공정하게 분배하지 않는다. 올해 초 성과급을 준다고 했는데, 이거 받고 싶지 않다. 기본급에 포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양대석 지회장은 “동일산업은 오씨 일가의 회사다. 지금이 3세가 해 먹고 있다. 사장과 대화가 안 된다. 힘으로 굴복시켜야 할 듯하다. 동일산업지회 조합원들은 준비됐다”라며 “포항지부 동지 여러분과 21년 투쟁뿐 아니라 22년, 23년에도 승리하도록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황우찬 지부장은 “동일산업은 주는 대로 받으라는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며 “사측에 경고한다. 동일산업 사장이 지회의 상식적인 요구를 해결하지 않고 금속노조와 한 판 붙을 생각이라면, 지부는 투쟁을 택하겠다”라고 결의를 밝혔다. 포항지부 조합원들은 2021년 투쟁과 동일산업지회 투쟁 승리를 염원하는 선전물을 동일산업 공장 곳곳에 매는 상징의식으로 결의대회를 마무리했다.